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박바울 목사님 그리고 JSB Mission Fund Team께

안녕하세요. 주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2024년도 2개월이 지나면 2025년 새해로 넘어갑니다. 벌써 25년을 준비해야하는 시간이 오니 새삼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4년도 박바울 목사님 그리고 JSB Mission Fund Team의 귀한 후원금과 기도로 남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브라질에서 농아선교활동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중간에 예기치 못한 홍수로 인해 고생을 하였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뇨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올해 증세가 조금 심해져서 체력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진 것을 느낄 때가 있고 인슐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활동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선교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9월부터 현재 콜롬비아 메데린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고 2025년에도 계속해서 콜롬비아 농아 선교에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농아인들의 직장에 따라 두 군데로 나누어 월, 화,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성경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농아인 성도 집에서 토요일, 주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예배 및 성경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농아인 성도들과 신학생들을 데리고 지방 사역을 함께 하여 전도 훈련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농아인들의 영혼 구원과 제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콜롬비아에서 몸 건강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데 지혜를 주시기를
3. 콜롬비아 농아인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메데린 선교활동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메데린 선교활동

